

안개 잦은 봄철 바다 위 '안전' 민생부터 챙긴다

- 해양수산부, 선박충돌·안전사고 등 대비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잦은 안개와 교통량 증가에 따른 선박 충돌사고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봄철에 발생하는 해양사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박 충돌사고를 집중 관리한다. 먼저, 해상 종사자의 경계 부주의로 인한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항 교육과 불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실시간·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혼잡 해역 예측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항해를 유도한다. 또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 등을 중심으로 안전물품을 지원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 실시간 해상교통량, 교통 혼잡도 현황·예측 정보, 해양사고 통계·분석 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정보시스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영)

둘째,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업인 등 생업 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한다. 여객선·선박 운항정보, 해양사고 뉴스, 해양기상 예보 등을 제공하는 해양교통방송의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어선원과 내항 선원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바다내비 통신망(LTE-M)을 이용한 원격 해상의료지원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짙은 안개가 끼는 농무기와 여행객이 많아지는 행락철에 대비하여 연안여객선 및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항로표지시설 등 안전시설 점검도 강화한다. 아울러, 위험물 운반선과 및 화물선 과적·과승 여부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선박 종사자 대상 안전수칙 캠페인과 대국민 대상 해양안전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통해 봄에 주로 발생할 만한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살살이 살피고, 섬 주민·어업인 등의 안전도 든든하게 지키겠다."라며,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책임자	과 장	최성용 (044-200-5810)
	해사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세준 (044-200-5846)

□ 봄철 해상교통 여건

- 잦은 안개*와 성어기 해상교통량 증가로 선박사고 발생 개연성 증가
 - * 부산, 인천 등 5대 항구 최근 3년 평균 안개일수: 겨울철 2.8일 → 봄철 6.4일
- 충돌(39%)·안전(25%) 사고 비중이 높으며, 사고 건수도 매년 증가*
 - * 봄철 선박 충돌사고 : ('19) 44 → ('20) 57 → ('21) 58 → ('22) 52 → ('23) 67(건)

□ 주요 해양사고 예방대책

① 봄철 빈발사고(충돌·안전사고 등) 예방활동 강화

- 선박의 경계근무 강화를 위한 음주단속, 불시점검 등을 실시하고, 교통혼잡도 예측정보(MTIS*) 등 활용하여 안전항해 유도(~'24.下)
- * (해상교통안전정보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상혼잡도 예측 등 안전정보 제공

② 어업인·생업 종사자를 위한 든든한 안전 확보

- 육해상 보건·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해양교통방송* 시범운영 및 원격 의료지원 서비스 확대**, 영세선박 안전컨설팅·무상점검 등 지원
- * 여객선 운항정보, 실시간 교통·사고상황 등 방송 콘텐츠 제작 → 방송국 제공·송출
- ** 어선원, 내항선원에 대한 원격 응급처치, 건강상담 서비스 제공(100→120척, '24.4~)

③ 농무기·행락철 대비 선박 및 시설 안전관리

- 전체 여객선, 고위험 낚시어선(15%) 및 전국 항로표지 시설(3,342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물운반선 안전 관리 등 추진*
- * 위험물운반선 폭발·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하역·밀폐작업 안전절차 중점점검(연중)

④ 대국민 안전교육 확대 등 해양안전문화 확산

- 선박 종사자 경각심 고취를 위해 안전교육을 내실화*하고, 대국민 해양안전교육 대상을 유아(4~6세)와 섬·벽지 소재 학교까지 확대
- * 선박 안전항해 및 사고 유형별 비상 안전조치를 위한 실습 위주의 현장교육 강화

□ 향후계획 :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배포(2.29)